



월간 전략 노트

Strategist

김예은

02) 6915-5681

yekim@ibks.com

CONTENTS

Summary	3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시장.....	3
Macro.....	4
당분간 경기 둔화 우려는 지속될 전망.....	5
미국발 불확실성 상존.....	8
Liquidity	10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 2월에도 지속될까?	10
Earnings & Valuation.....	15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하향.....	16
Appendix	21
업종별 전망	22
업종별 추천 종목.....	26
2월 증시 이벤트 캘린더.....	29
Review	30

Summary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시장

2월 증시,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살아난 위험자산
선호심리의 대결

2월 주식시장은 펀더멘털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지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기대, 연준의 완화적 기조,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상승 마감했다. 특히 외국인과 연기금의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며 주요국 지수에 비해 수익률이 높았다.

2월 시장은 과연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한다. 매크로 측면에서 본다면 지표와 투자심리 사이에는 괴리가 큰 상황이며, 개선에 대한 신호도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던 미-중 무역분쟁과 미 연방정부의 섣다른,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 정치적 리스크가 여전하다. 이는 시장에 선반영돼 지수 하락을 주도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다만 연준의 완화적인 기조가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달러 강세가 일부 완화되며 신흥국 위험자산에 유리한 환경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수급 흐름이 2월 시장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외국인이 시가 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3조 이상 순매수했으며 연기금 역시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이 3조 이상 순매수한 것은 2017년 3월 이후 처음이며, 급하게 상승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지 출회할 수 있다. 벤치마크의 비중 변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지수 하락을 이끌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어닝 시즌은 예상대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9년 전체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1분기 실적 개선 업종 및 종목으로 관심이 이동해 수급 주체의 매수로 이들 업종은 상승하고 있다. 조금 더 저렴할 때 선매수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12개월 선행 EPS 역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12개월 선행 PER은 바닥을 통과하며 상승하고 있다. 한국 증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가변동성보다 이익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PER의 정상화 흐름이 EPS 하향을 상쇄해 줄 것으로 예상하며, 밸류에이션은 정상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2월 증시는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나 살아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브렉시트 리스크, 미 연방정부의 섣다른 재개 가능성 등에 따른 변동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지수 움직임을 좌우할 가장 큰 요인은 수급이며,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및 중국 A주의 MSCI EM 지수 편입 비중 확대를 염두한 전략이 필요하다. 실적 개선과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 운송, 기계, 필수소비재, 생활소비재, 미디어/엔터, 유통 업종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판단한다.

2월 KOSPI Trading Range 2,100~2,210



Monthly Strategy

Macro

당분간 경기 둔화 우려는 지속될 전망

미국발 불확실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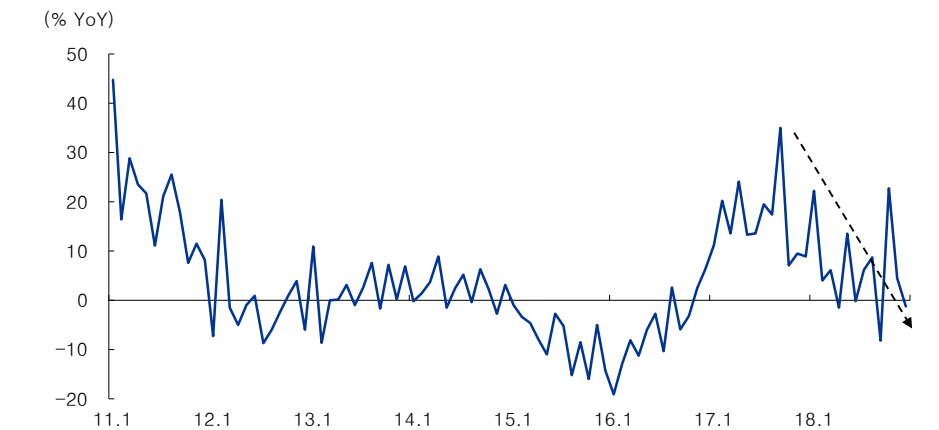
당분간 경기 둔화 우려는 지속될 전망

지표가 보내는 신호와 엇갈린 투자심리

수출의 둔화 흐름을
피하기는 어려워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이다. 수출 경기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좌우되는 등 의존도가 높다. 최근 지표를 보면 12월 수출은 감소했고 1월 1~20일까지 수출은 14.6%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후에도 불확실성 요인은 지속된다는 판단이다.

그림 1. 한국 수출, 변동은 있지만 둔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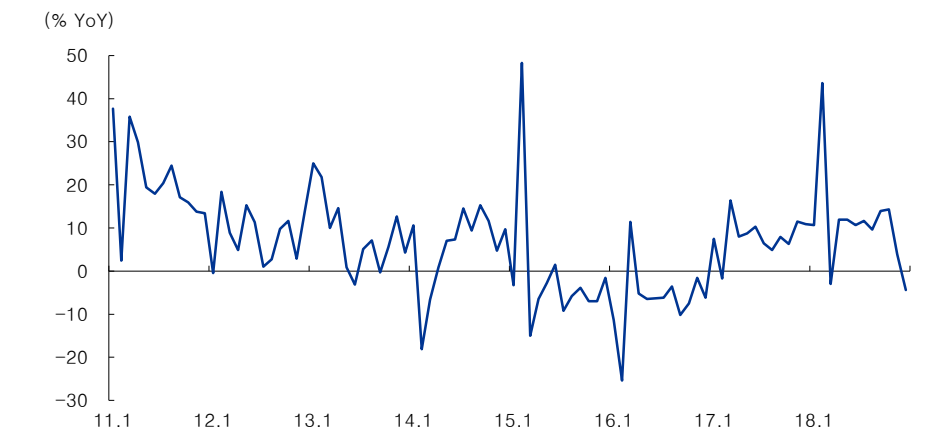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중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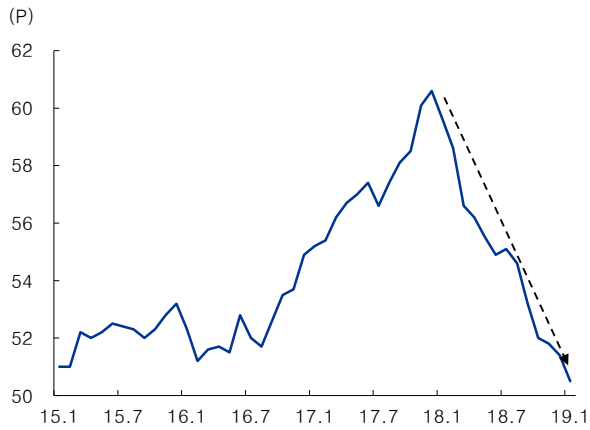
한국 수출 지표는 매월 1일 발표로 다른 주요 국가보다 먼저 발표돼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다른 지표는 PMI로 유로존, 중국의 제조업 PMI를 통해 수출 둔화는 예상했던 바이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의 수출이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림 2. 중국 수출, 비교적 견조했으나 최근 들어 둔화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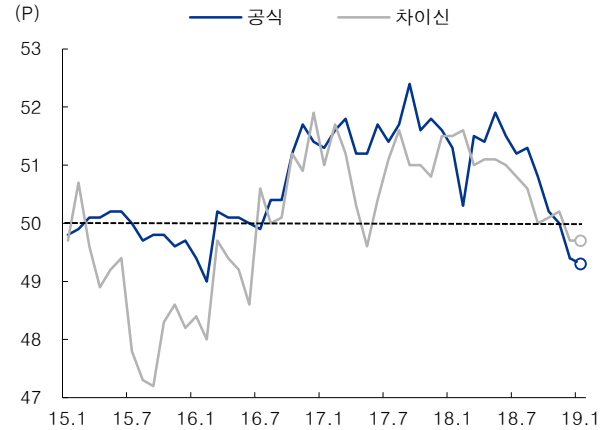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3. 유로존의 마켓 제조업 PMI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4. 중국의 공식 및 차이신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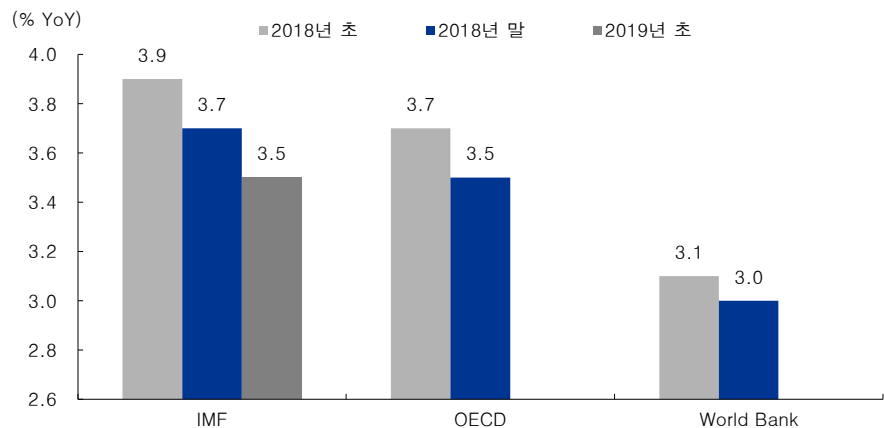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IMF,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마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이로 인해 주요국 중앙은행 및 IMF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IMF는 1월 21일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2018년 10월에 비해 0.2%p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7%에서 3.6%로 0.1%p 하향 조정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상존하는 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림 5. 하향 조정된 2019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



자료: IMF, OECD, World Bank,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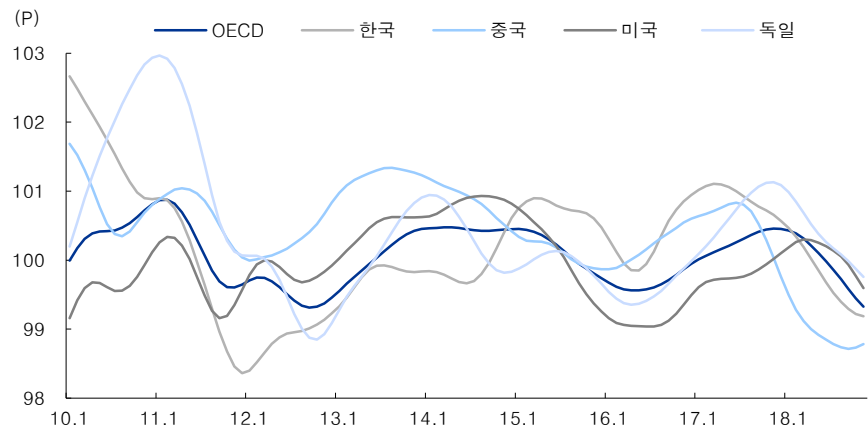
OECD 경기선행지수 하락세 지속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 흐름도 여전하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 연속 하락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시사하고 있다.

생산성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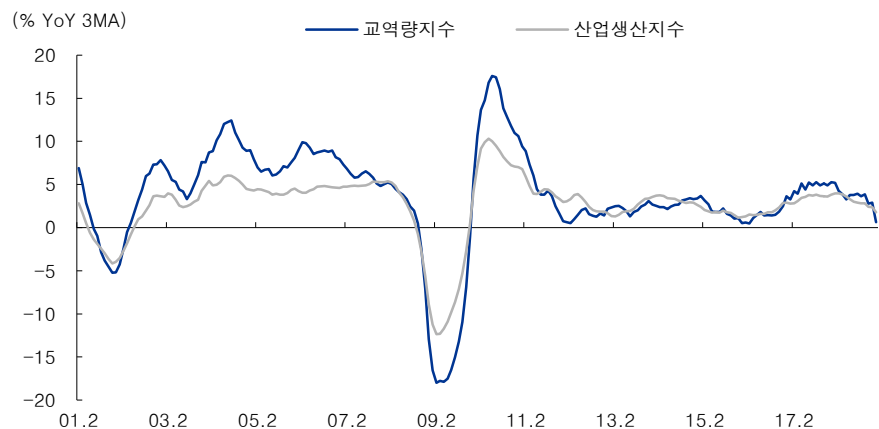
중국 경제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며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국가의 경기가 예상보다 더욱 둔화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의 둔화이다. 산업생산 지표를 통해 많은 나라의 생산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신호이다.

그림 6.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OECD, IBK투자증권

그림 7. 진폭이 줄어든 교역량 및 산업생산, 둔화



자료: CPB, Bloomberg, IBK투자증권

미국발 불확실성의 상존

언제든 변동성 확대할 수 있는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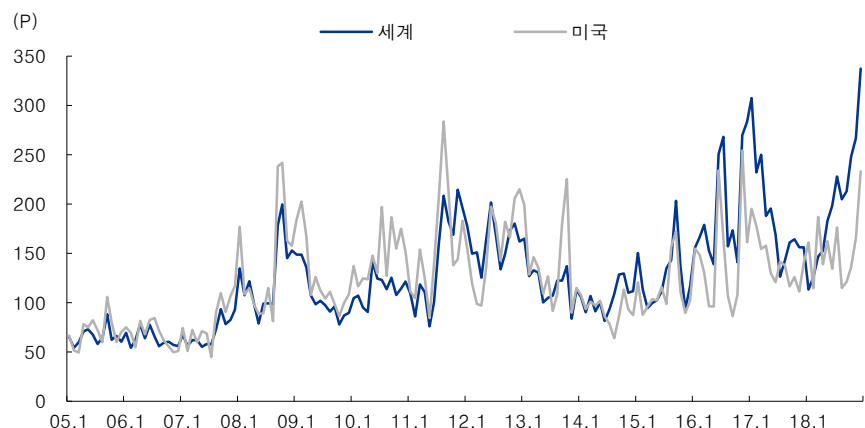
언제든 부각될 수 있는
리스크 상존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1월 30~31일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상과 관련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맞지만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급 협상에서 무역 관련 부문은 일부 합의가 나타날 수 있으나 핵심 사안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월 17일까지 수입 자동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우의 수가 다양하지만 미-중 무역협상 이슈에 가려져 있었던 자동차 관세 우려가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호적인 분위기와 달리 협상 시한인 3월 1일까지 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

최근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갈등이 부각될 때마다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

그림 8. 세계 및 미국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



자료: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BK투자증권

미국발 불확실성, 단기
변동성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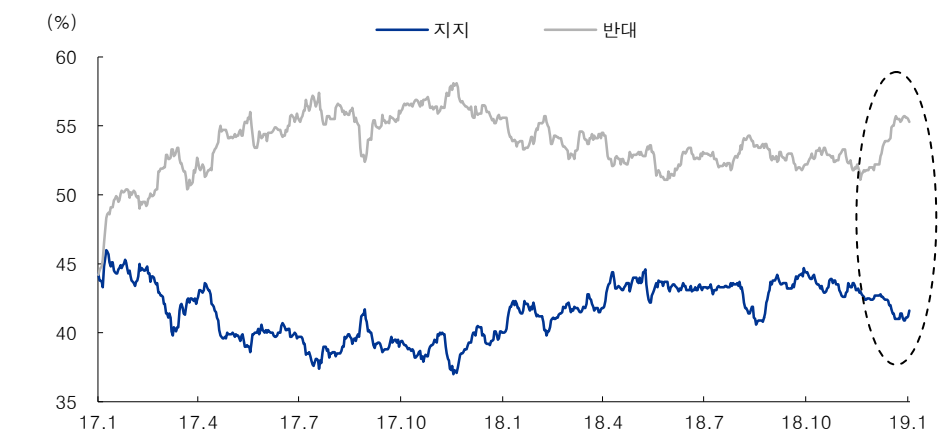
최장 기간 이어지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일시적으로 해소됐다. 2월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을 해소하고 정부 운영을 재개하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35일 동안의 업무 정지로 110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었으며 약 30억 달러는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2018년 4분기 GDP 0.1%, 2019년 1분기 GDP의 0.2% 손실을 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구한 57억 달러를 상회한 금액이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에도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은 의회가 장벽 예산을 제외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셧다운 재개 또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언급하는 등 갈등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합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트럼프의 반대 입장이 늘어났다. 따라서 미국발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재부각될 수 있다.

그림 9.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섯다운 이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



자료: Real Clear Politics, IBK투자증권

연준, 완화적인 스탠스 이어갈 전망

올해부터는 매회 FOMC마다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최근의 연준 기조를 미뤄봤을 때 완화적인 입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FOMC를 앞두고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를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할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이번 회의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어려울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금리인상 후반기 방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준의 기조에 따라 달러 강세가 다소 완화되며 환율 측면에서 신흥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나 상반기에는 적어도 달러 강세가 일부 완화되면서 신흥국 위험자산에 유리한 환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Monthly Strategy

Liquidity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 2월에도 지속될까?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 2월에도 지속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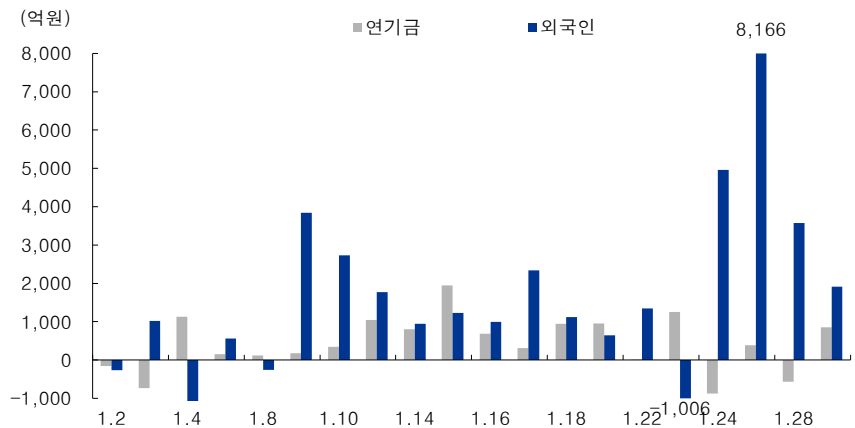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주의

강한 외국인의 순매수

1월 KOSPI 상승은 외국인과 연기금의 순매수가 이끌었다. 물론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연준의 완화적인 태도,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 대외 변수가 개선된 것도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하지만 강한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지수 상승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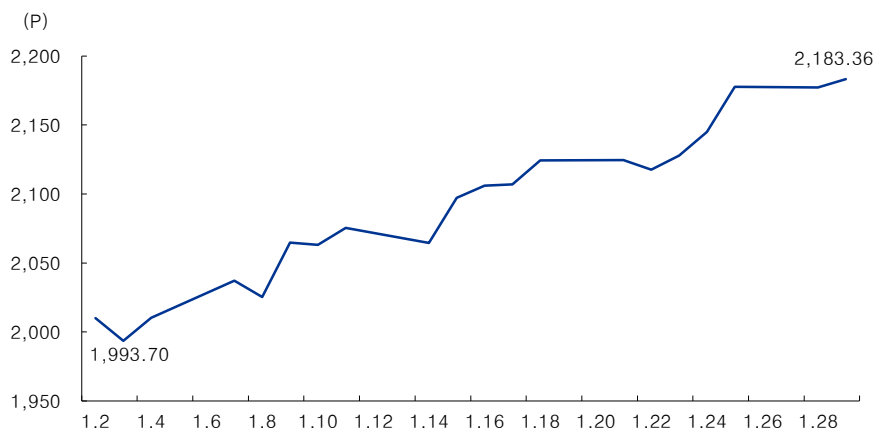
외국인이 1월 중 4거래일을 제외한 전 거래일 모두 순매수하는 등 3조 이상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여기에 연기금 역시 4거래일 제외한 전 거래일을 모두 순매수했으며 4일부터 23일까지 1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등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다.

그림 10. 2019년 1월 외국인과 연기금의 순매수 금액 추이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11. 1월 KOSPI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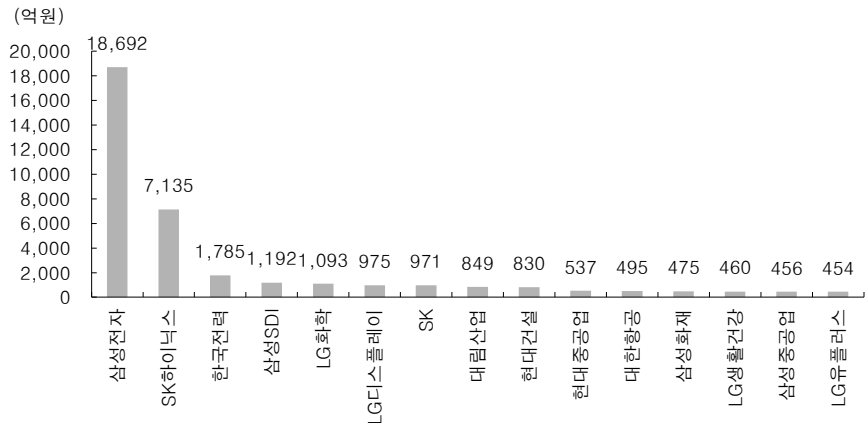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순매수한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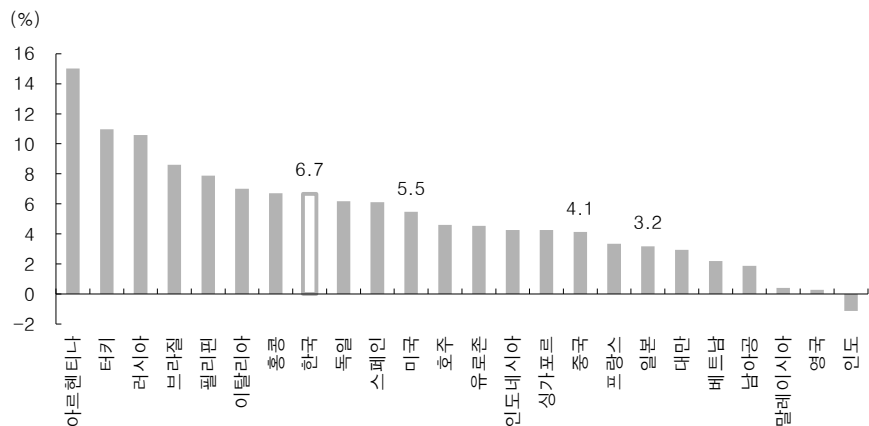
특히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이다. 이에 지수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다른 국가의 대표 지수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림 12. 연초 이후 KOSPI200 가운데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15개 종목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13. 1월 주요국 증시 등락률(1월 28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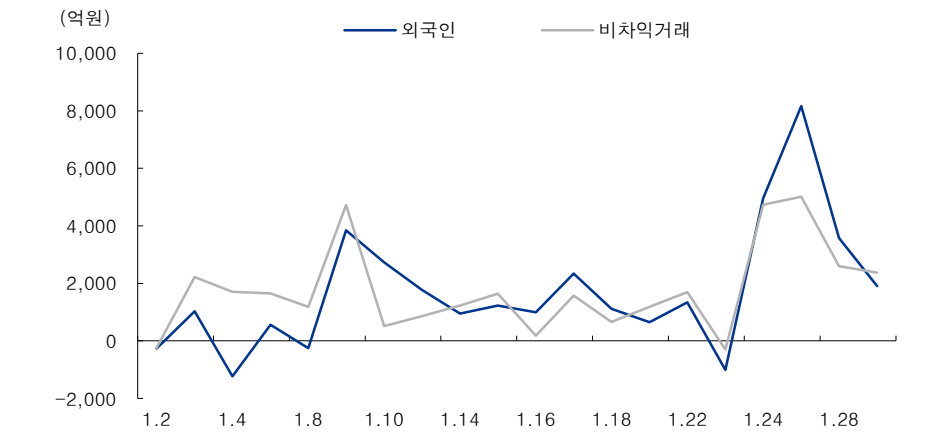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패시브 중심의 자금 유입

이러한 외국인의 자금 성격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리스크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 개선, 한국 증시의 저평가, 연초 기관의 자금집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성격의 자금이 유입돼 대형주가 중소형주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

여기에 글로벌 자금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흐름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선진국 대비 신흥국 증시의 강도가 낮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신흥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림 14. 연초 이후 KOSPI의 외국인 순매수 금액과 비차익거래 순매수 금액 추이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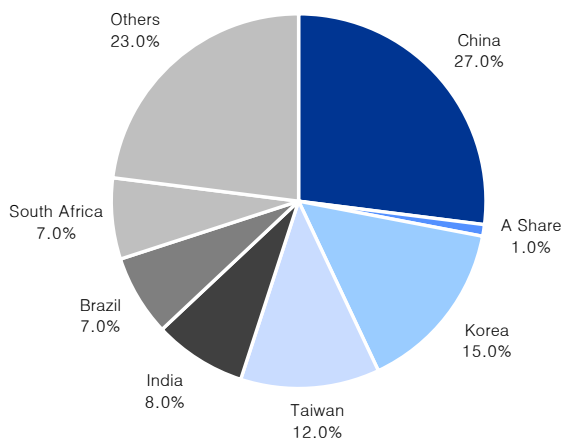
중국 A주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비중 이슈에
유의

살아난 투자심리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수급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있다. 2월 말 발표 예정인 중국 A주 MSCI 신흥국지수 편입 비중 확대 여부이다.

벤치마크 지수의 비중 변화는 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형주에 비우호적인 요인이며 외국인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는 악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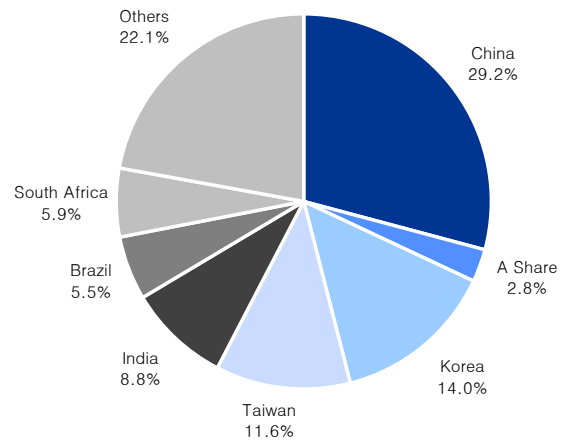
이번에 비중 확대가 결정되면 중국 A주 비중은 현재 5%에서 5월과 8월 각각 7.5%씩 편입돼 20%로 상향된다. 중국 A주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도 신흥국지수에 포함된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 유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약 14조원 가량이며, 이 중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예상 금액은 3조원 가량이다.

그림 15. 현재는 중국 A주 비중이 5%



주: 2018년 9월 기준
자료: MSCI, IBK투자증권

그림 16. 중국 A주 비중이 20%로 확대



주: 2018년 9월 기준
자료: MSCI,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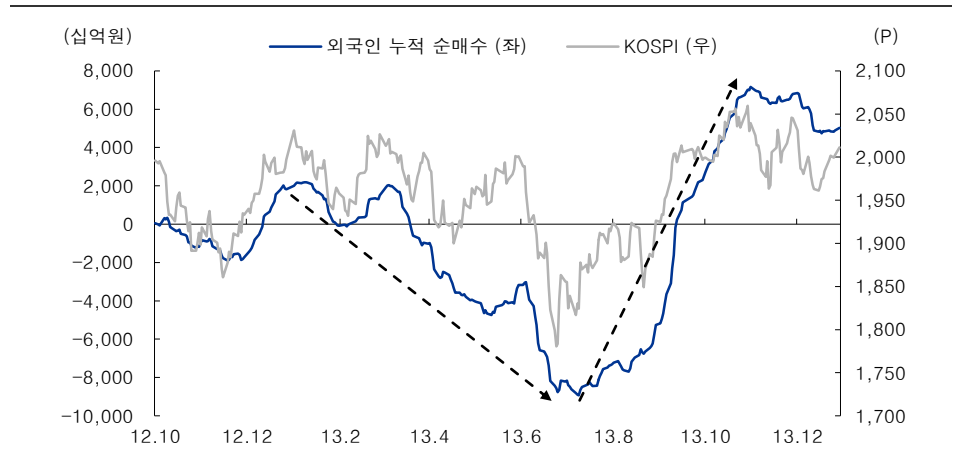
2013년 뱅가드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 외국인의
순매도로 지수 하락

과거에 이와 유사했던 것은 2013년 뱅가드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이다. 2012년 하반기 뱅가드는 운용비용을 축소하고자 MSCI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았던 펀드 중 6개를 FTSE로 벤치마크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MSCI에서는 신흥국시장에 속하지만 FTSE에서는 선진국시장으로 분류돼 익스포저 축소로 매도 물량이 출회됐다.

2013년 상반기 외국인인 10조원 가량 순매도했으며 KOSPI는 10% 이상 하락했다. 그 당시, 한국 시장은 외국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매력적이며 금액 자체가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KOSPI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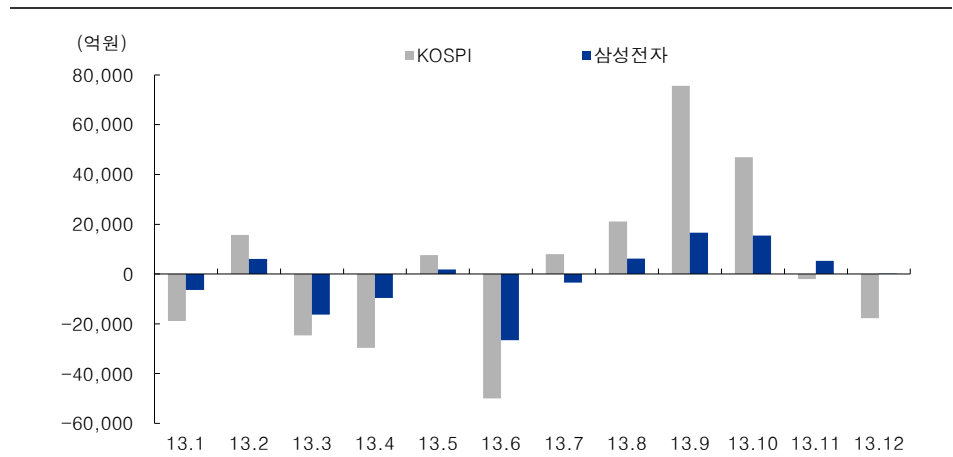
상반기 벤치마크 지수 변경 이슈가 종료된 뒤 저가 매력이 부각돼 외국인은 44거래일 연속, 14조원 가량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그림 17.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 당시 KOSPI와 외국인 수급



주: 2012년 10월 기준 /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18. 2013년 상반기,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1조원 순매도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따라서 중국 A주의 비중 확대가 결정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Monthly Strategy

Earnings & Valuation

저가 매력은 부각되나 낮아지는 실적 추정치는 부담

저가 매력은 부각되나 낮아지는 실적 추정치는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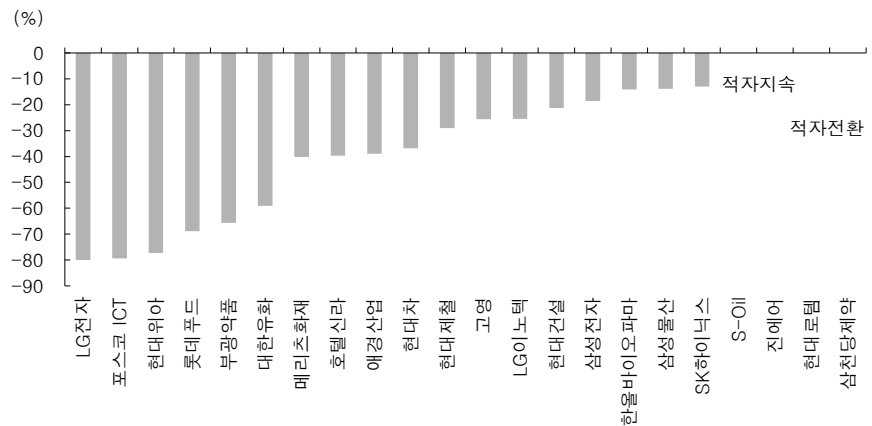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하향

실적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

2018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기업은 대체로 시장 예상을 하회하고 있다.

4분기는 일회성 비용 등이 반영돼 예상을 하회하는 어닝 쇼크가 빈번하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면서 기업 실적 전망치도 2018년 4분기부터 크게 하향 조정되고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폭으로 하향한 실적이 발표되고 있다.

그림 19. 4분기 어닝 쇼크 기록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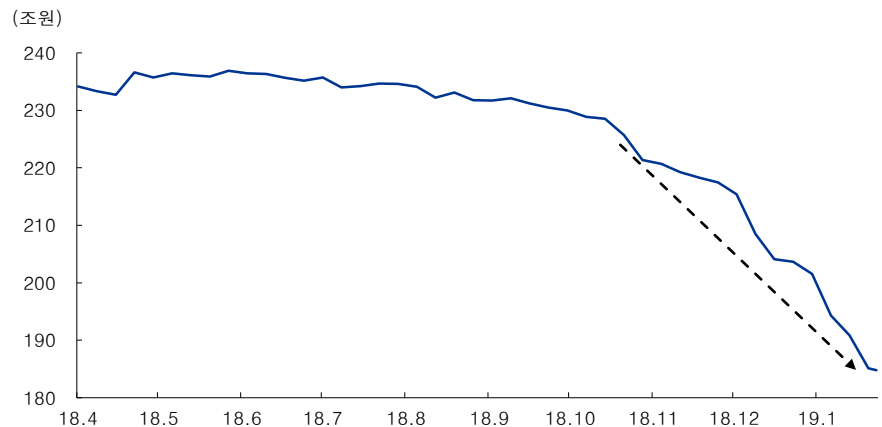


주: 2019년 1월 28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이며 괴리율이 10% 이상인 기업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2019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크게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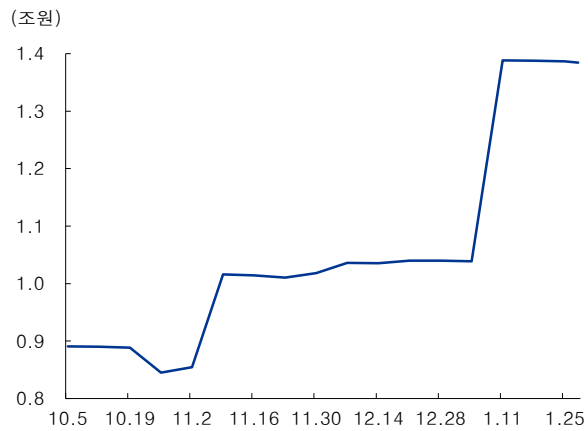
2019년 실적 역시 눈높이가 크게 낮아졌다. 국내는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 많아 3월 말까지 실적 발표가 진행된다. 이에 2018년 4월부터 2019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 흐름을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2018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20% 정도 하향 조정됐다.

그림 20. 2019년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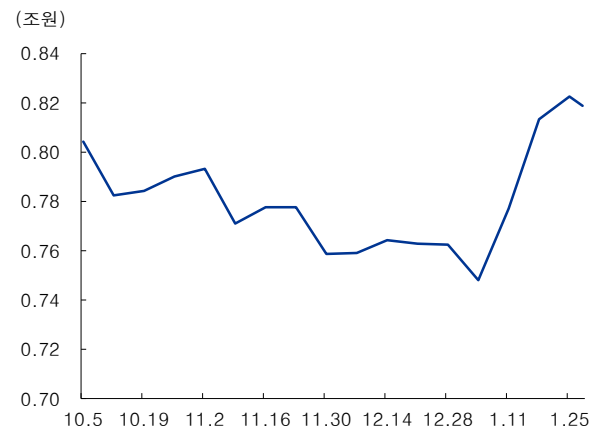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그림 23. 필수소비재 2019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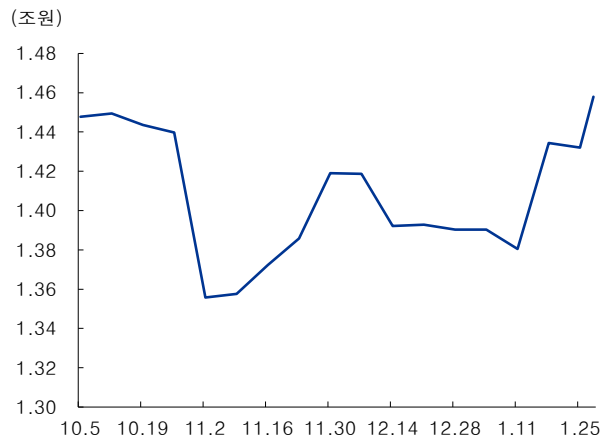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24. 운송 2019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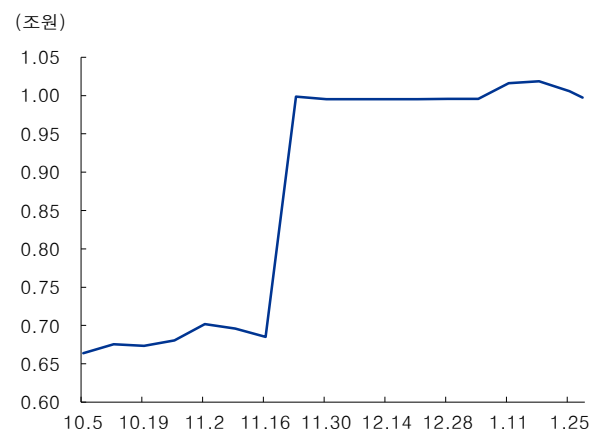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25. 생활소비재 2019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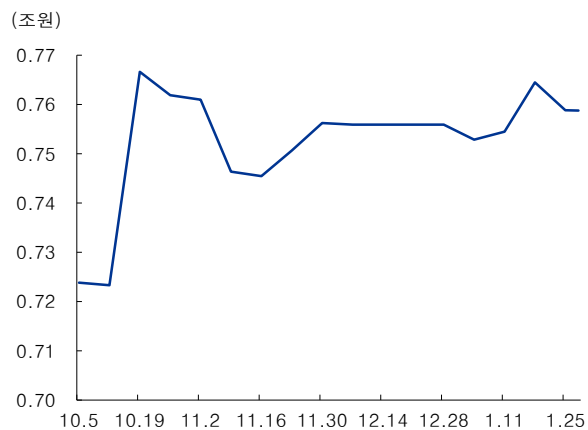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26. 기계 2019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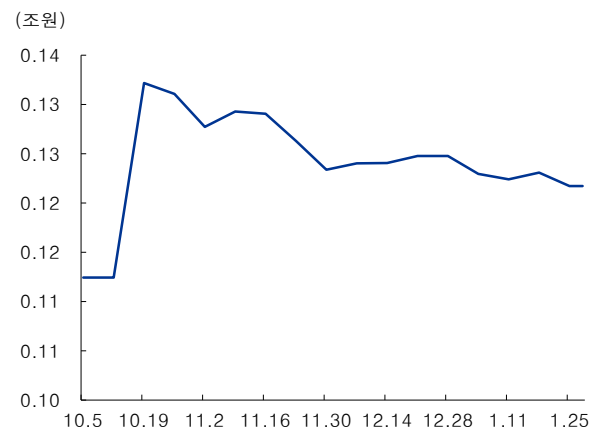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27. 유통 2019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28. 미디어, 교육 2019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표 1. 1분기 영업이익 개선 업종에서의 종목

업종	종목	시가총액 (단위: 억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		주가 등락률 (%)	
			QoQ	YoY	1M	3M
운송	대한항공	33,480	69.7	27.2	6.8	37.4
	한진칼	16,716	207.2	11.1	-5.2	52.7
	제주항공	8,500	473.0	5.5	-3.9	12.0
	AJ렌터카	2,680	9.8	17.4	-1.6	21.2
기계	현대엘리베이	29,603	22.1	38.6	1.9	42.9
	현대로템	22,278	91.4	260.1	-6.1	26.0
	LS	17,807	6.6	25.2	12.6	9.1
	두산인프라코어	17,527	44.7	11.4	10.9	2.1
	LS산전	15,660	26.8	2.1	6.5	4.5
	현대건설기계	10,047	151.4	6.8	19.4	-43.6
	현대일렉트릭	5,201	흑자전환	흑자전환	15.1	-56.6
필수소비재	디와이파워	1,711	15.8	18.6	9.2	43.5
	KT&G	136,743	56.3	18.4	-1.9	-0.4
	롯데지주	54,028	226.8	371.9	-2.3	8.0
	CJ제일제당	50,206	38.8	18.5	0.9	-0.6
	오리온	45,269	19.3	0.0	-4.6	15.7
	오뚜기	28,121	31.1	10.8	7.7	15.7
	농심	16,879	48.6	6.1	9.0	29.7
	애경산업	10,546	18.7	16.4	-15.7	10.3
	동원F&B	10,400	240.3	32.6	-6.3	-1.6
	대상	8,679	117.7	7.4	0.0	12.3
	롯데푸드	7,233	208.4	4.7	-9.9	-6.0
	팜스코	2,935	283.8	18.3	2.7	-13.6
생활소비재	선진	2,675	68.5	21.6	-0.9	9.2
	LG생활건강	188,356	50.0	9.6	9.5	15.3
	아모레퍼시픽	103,472	274.5	0.3	-15.5	10.6
	코웨이	61,254	14.1	5.5	12.0	31.7
	휠라코리아	28,785	33.6	20.7	-12.0	6.2
	영원무역	15,332	83.5	13.2	-9.8	4.2
	한국콜마	14,928	10.6	86.1	-5.2	21.9
	코스맥스	12,411	15.1	54.0	-5.0	14.4
	한섬	9,039	4.0	18.1	1.2	2.2
	쿠쿠홈시스	8,145	16.7	22.2	2.3	12.4
유통	한국콜마홀딩스	5,534	31.5	34.3	4.4	12.6
	이마트	52,546	21.2	6.8	3.3	-3.8
	현대홈쇼핑	12,360	19.7	12.2	4.0	2.0
	엔에스쇼핑	4,583	35.6	1.7	6.3	28.3

주1: 업종은 WI26 KSE 기준 / 주2: 기준일은 2019년 1월 29일이며 / 주3: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단순 분류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EPS의 하락에도 PER
상승이 이를 상쇄할 전망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EPS는 하향세이다. 하지만 12개월 선행 PER은 바닥을 통과하며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이다. PER은 현재 주가를 주당순이익(EPS)로 나눈 값으로 EPS가 낮아지면서 PER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PER은 낮은 수준이며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매력에 있다.

한국 증시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주가변동성보다는 이익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PER의 정상화 흐름이 EPS 하향을 상쇄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9. KOSPI의 12개월 선행 EPS 추이: 전주대비 1.7%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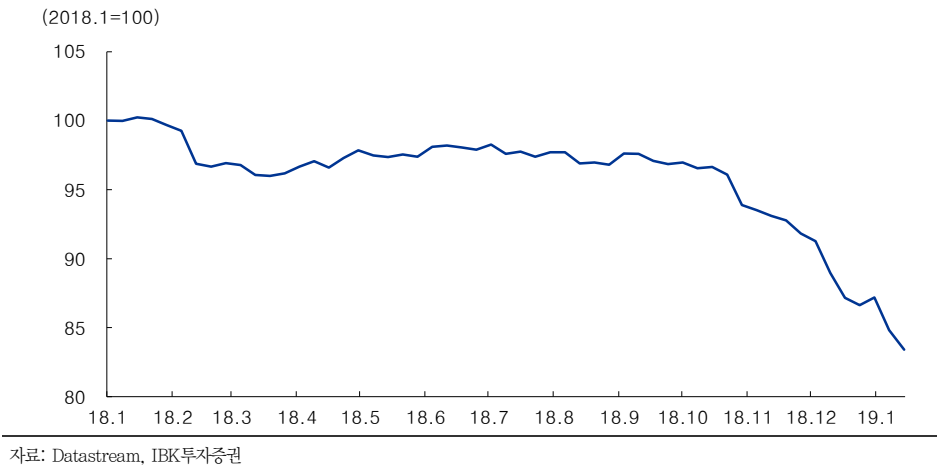


그림 30. KOSPI의 12개월 선행 PER 추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에
진입

따라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정상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심리가 지배하는 현재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저평가 업종 및 종목 매력이 부각돼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음을 염두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Monthly Strategy

Appendix

업종별 전망

업종별 추천 종목

2월 증시 이벤트 캘린더

Review

업종별 전망

업종	통신서비스	지주
투자의견	비중확대 (Overweight)	비중확대 (Overweight)
월간이슈	5G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업 확장 전략 5G 전용 통신요금제 설계 - 사업구조 변화	- 스튜어드십 코드 부각 - 법 개정 등 지배구조 규제 이슈
전망	- 사업 및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 예상 - 미디어 사업의 양적 및 질적 향상 - 미디어에 관심이 높아지면 가입자 합산 규제 재 이슈 가능성 - 마케팅 이벤트가 없어 가입자시장 안정	-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 - 법 개정이 지주회사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연초 대형주와 성장 기대감이 높은 업종 부각으로 관련 비중이 높은 지주회사 부각

업종	반도체	디스플레이
투자의견	비중확대 (Overweight)	중립 (Neutral)
월간이슈	- Mobile Flagship 모델 출시에 따른 메모리 수요 개선 기대 - DRAM, NAND 가격 하락세 커질 것으로 예상 - 실적과는 상관없이 이미 주가는 크게 상승한 국면. 추가 상승 여력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패널 가격 하락세 지속될 전망 1분기 중 CSOT 신규 FAB 양산 개시 - IT 수요 부진 지속될 전망
전망	- 반도체 가격 반등은 2분기부터 시작될 전망 - IDC업체들의 수요 반등 역시 2분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 - Intel 신규 CPU 출시는 2분기 중	- 가격 하락은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 -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 FAB 건설에 따른 라인 축소 변수가 될 수도 있음. - 중소형 OLED 수요는 위축될 전망

업종	전자부품	은행
투자의견	비중확대 (Overweight)	비중확대 (Overweight)
월간이슈	- IT 전방 산업 부진으로 부품업체들은 일반적 으로는 부진 - Galaxy 10 출시에 따라 모바일 부품 업체들 은 실적 반등 모색	COFIX 기준금리에 요구불예금 포함. 7월부터 신규대출에 실행될 예정. 대출증가율이 낮아져 영향력은 생각보다 작을 것으로 보임
전망	모바일 부품 중심으로 실적 차별화가 예상 됨. 삼성전자의 전략 변화에 수혜 받을 업종 은 2019년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됨	COFIX 기준금리에 요구불예금 포함. 7월부터 신규대출에 실행될 예정. 대출증가율이 낮아져 영향력은 생각보다 작을 것으로 보임

업종	유통	화장품
투자의견	비중확대 (Overweight)	비중확대 (Overweight)
월간이슈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 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1분기 소매유통 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전분기 대비 4포인트 하락한 92포인트로 3분기 연속 하락한 수준. 또한 소매유통업계의 2019년 1분기 유통시장을 부정적 전망치가 제시됨. 특히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대해 가장 부정적 다 만, 인터넷쇼핑, 홈쇼핑 등의 온라인 유통 채널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2018년 12월 대중국화장품 수출은 1억 4,560만 달러로 전년대비 5.5% 역신장에 그 침. 4분기 화장품 업종 실적은 브랜드와 OEM/ODM 간의 재무적 결과가 뚜렷한 차이 를 나타낼 것으로 2019년 1분기에도 이러한 격차는 유지될 것 으로 보임
전망	유통업계 2월 전년대비 명절 모멘텀이 1월 에 집중되는 시점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의 기존점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 다만 1월 결과 정도에 따라 1~2월 합산 실적은 전년 대비 영업시간 단축, 최저임금 반영 등에 따 른 기저효과는 충분한 시점으로 판단됨	2019년 국내 면세점 내 다이공 구매 트렌드 는 2월 춘절을 앞둔 대목 효과는 긍정적으로 파악됨. 반면에 전년과 달리 전자상거래법 진행으로 비정규직 세무조사와 통관검열로 전년대비 매출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 단됨

업종	자동차	기계
투자의견	비중확대 (Overweight)	비중확대 (Overweight)
월간이슈	- LMC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9,479만대로 전년비 0.5% 감소로 마감. 하반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둔화 때문. 미국 판매는 소폭 증가했으나 WLTP 영향이 있었던 서유럽과 무역분쟁으로 소비심리가 약화된 중국은 감소세 기록. 4Q18 실적발표의 특징은 현대모비스 컨센상화>기아차 컨센 부합>현대차 컨센 하회	(건기)중국 굴삭기 시장은 2018년 18.4만대(+41%)로 역사적 최고치를 갱신. 두산인프라코어는 15,630대(+44%), MS 8.5%로 4위 기록, 현대건설기계는 7,234대(+80%), MS 3.9% 기록 (방산)남북 평화 무드 조성으로 1년 가까이 미뤄져 있던 국방중기계획(19~23년)이 발표됨. 방위력개선비 증가율(+10.8%)을 국방비 증가율(+7.5%)보다 높게 잡음으로써 방산업체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으로 평가
전망	2019년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수요는 강보합세 전망. 수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서유럽/중국 등의 수요는 둔화되고, 신흥국 인도/러시아/브라질 등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 2019년 실적의 방향성은 턴어라운드 기대. 일회성 비용 압박의 완화, 볼륨차종과 SUV 강화에 따른 믹스개선이 기대되기 때문	(건기)2019년 중국 굴삭기 수요는 소폭 감소하며 연착륙 예상. 2020년 배기규제 강화를 앞두고 선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상저하고 패턴 예상 (방산)그동안 방산비리, 회계문제, 지체상금 등의 일회성 요인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해 왔으나 2019년은 기저효과와 방위력 개선비 증가로 개선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업종	건설	인터넷
투자의견	비중확대 (Overweight)	비중확대 (Overweight)
월간이슈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한 업종 내 대주주 지분이 취약한 회사에 대한 관심 - SOC관련 지출 확대로 토목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관심 고조	2018년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 NAVER와 카카오의 핀테크 전략이 좀더 구체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트렌드인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가 중요
전망	- 재정 확대 이슈로 업종에 대한 관심 고조 - 건설업종의 실적은 2018년 이후 2년간 비우호적일 전망, 이에 비이성정 과열 시 차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 가능	-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4분기 실적 둔화로 조정 가능성이 높음 - NAVER의 일본과 동남아 핀테크 전략과 2019년 비용 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에 따라 변동성 발생 - 카카오는 카폴 관련 사회적 갈등에 따라 변동성 지속 전망

업종	게임	음식료
투자의견	비중확대 (Overweight)	비중확대 (Overweight)
월간이슈	- 중국 내 내자 판호가 발급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게임들의 중국 내 판호 발급 기대감 상승 - 대형 게임사보다는 중소형 게임사들의 신작 및 해외 출시가 지속될 전망	
전망	- 중국 판호 관련 넷마블, 웹젠, 위메이드 등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신작 및 해외 출시가 예상되는 게임빌, 조이시티, 선데이토즈 등 중소형 게임주 반등 기대	- 사드 기저효과 등으로 4Q17 대비 4Q18 이익이 대체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 기대치가 높아 실제 4Q18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이를 고려하면 현재 코스피 대비 음식료 업종의 PER 프리미엄 70% 수준은 밸류에이션 매력에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업종	정유	2차전지
투자의견	비중확대 (Overweight)	비중확대 (Overweight)
월간이슈	- 미중 무역분쟁 이슈에 따라 유가 변동성 확대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와 초과공급 우려 지속 - 휘발유가격 약세와 등경유 가격 약세로 복합 마진 또한 약세	- 소재업체들 설비 증설 발표 - 자동차 업체들 신차 발표 - ESS 화재 사건에 따른 중대형 전지 부진
전망	- 정유업종 4분기 실적 적자전환 예상되나 1분기를 기점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일 전망 - 등경유 마진은 계절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약보합 유지 - 미국 휘발유 재고 높은수준 유지하며 드라이빙 시즌 도입 전까지 저마진 지속	- 자동차 전지는 성장 초기 국면 2차전지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 및 소재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가 동반될 것으로 기대 2020년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섹터 관심 높아질 전망

업종별 추천 종목

업종	추천 종목	추천 이유
통신서비스	LG유플러스	· 2018년 4분기에 불안정한 금년 경제 상황을 비용 집행 시 고려 · 꾸준한 가입자 증가와 적극적인 마케팅 및 콘텐츠 확보 노력 가시화 · 양적 성장을 위한 고민과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주가에 긍정적
지주	LG	· 전자와 화학이 그룹의 실적과 주가에 기여도가 큼 · 전자의 상반기 실적 기대감이 지주 주가에 긍정적 · 배당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주환원 확대 기대
반도체	SK하이닉스	· 1분기 실적 저점으로 점진적 실적 개선 기대 · 외인 자금의 한국 유입은 IT업체들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 · 연내 최저 수준을 가정하더라도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
디스플레이	에스에프에이	·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에 따른 기대감
전자부품	KH바텍	· 삼성전자 폴더폰의 최대 수혜 · 2019년부터 본업 실적 개선 기대 · 신제품 출시 효과 기대
2차전지	삼성SDI	· 1분기 저점 이후 추세적 이익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모델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연간 영업이익 증가세 지속될 전망

업종	추천 종목	추천 이유
은행	기업은행	· 실적개선세 지속, 2018년 사상최고 순이익 전망 · 4분기 실적도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내용으로 전망 · 예년과 달리 높은 배당수익률에도 배당시즌 주가상승이 미약했기 때문에 Valuation 매력 높음
유통	GS홈쇼핑	· 홈쇼핑의 고정비(송출수수료) 역기저로 부담 완화 · 백화점의 구조조정 효과 소진 및 기존점 개선 둔화
화장품	한국콜마	· 중국 무석 법인의 본격적인 가동과 수주 증가 · 2018년 4월 CJ헬스케어 인수 이후 2018년 3분기까지 일회성 반영 완료. 2018년 4분기 및 2019년 1분기 사업적 시너지 본격화 전망 및 연결재무 기준 턴어라운드 모멘텀 집중
자동차	현대모비스	· 자율주행 및 친환경 부품 등 핵심부품의 적용률 증가로 믹스 개선 효과 나타나고 있음 · 해외 타OE 수주 증가 긍정적(17년 \$1.22bn, 18년 \$1.66bn, 19년 2.1bn 이상)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현대모비스 실적을 양호하게 관리하는 느낌 (2분기 연속 컨센서스 상회).
기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사업구조 재편으로 2019년 높은 실적 개선 기대. 2018.5월 한화시스템의 한화S&C 흡수합병, 2018.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한화 항공사업 양수/한화정밀기계의 (주)한화 공작기계사업 양수 등 · RSP사업은 중장기 성장동력. 엔진에서 핵심부품 수주 증가 효과도 기대 · 미국의 중국산 CCTV 수입제한으로 동사의 CCTV사업부의 반사이익 예상

업종	추천 종목	추천 이유
건설	대림산업	· 스튜어드쉽 코드 수혜주 · 유가하락에 따른 자체 유화부문 실적 개선 및 지분법 투자회사인 YNCC 등의 차별적 이익 개선 기대감 강화 전망
인터넷	카카오	· 2019년 모빌리티와 핀테크의 수익모델이 안착화되면서 수익성 개선 · 카카오M의 콘텐츠 제작과 카카오 플랫폼의 유통 시너지 기대
게임	엔씨소프트	· 2019년 상반기 리니지2M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 2020년까지 모바일 대작 3종, PC 1종 이상의 신작 출시 예상
음식료	오뚜기	· 4Q18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 라면 판매 호조세와 소스 유지 등 캐시카우 품목의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로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아 주목
정유	SK이노베이션	· 유가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실 반영으로 4분기 실적 악화 예상되나 · 19년도부터 동사의 VRDS설비와 블렌딩유 사업에 대한 모멘텀 부각될 전망 · 배터리 사업부도 22년까지 설비증설(55GWh) 이루어지며 현재 수주잔고 40조원으로 급격한 성장 예상됨

2월 증시 이벤트 캘린더

MON	TUE	WED	THU	FRI
- MSCI 분기 리뷰(2/11) - 중국 A주 MSCI EM 편입 관련 심의 결과 발표(2/28) - 한국 설 연휴(2/4~6) - 중국 춘절(2/4~10)	- EU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2/2) - 미국 INF 탈퇴 절차 진행(2/2) 2차 북미정상회담(2월 말) - MWC 2019 개최 (2/25~28) -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례 경제 정책 컨퍼런스(2/27~3/1)	- 금융위원회,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매뉴얼 공개(2월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2월 중)	- 한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2/1) - 중국 1월 차이신 제조업 PMI(2/1) - 중국 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2/3)	1 - 미국 1월 고용보고서 - 미국 1월 ISM 제조업지수 - 미국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F) -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지수(P) - 유로존 1월 마켓 제조업 PMI(F) - 한국 1월 수출/입
4 - 미국 12월 제조업수주/내구재주문(F) - 유로존 12월 생산자물가지수	5 - 미국 1월 ISM 비제조업지수 - 유로존 12월 소매판매 - 유로존 1월 마켓 서비스업 PMI(F)	6	7 중국 1월 외환보유고	8 - 미국 12월 도매재고(F) - 중국 1월 통화공급 M2(2/10~15) - 중국 1월 신규 위안화 대출(2/10~15)
11 중국 1월 외국인직접투자(2/11~18)	12	13 -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 - 유로존 12월 산업생산 - 한국 1월 취업자 증감 - 일본 1월 생산자물가지수	14 - 미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 - 유로존 4분기 GDP(S) - 중국 1월 수출/입 - 일본 4분기 GDP(P)	15 - 미국 1월 소매판매/광공업생산 - 미국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P) - 중국 1월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 - 일본 12월 광공업생산(F)
18	19 미국 2월 NAHB 주택시장지수	20 - 미국 1월 주택착공/건축허가 1월 FOMC 의사록 공개 - 유로존 2월 소비자신뢰지수(P) - 일본 1월 수출/입	21 - 미국 1월 경기선행지수 - 미국 1월 기존주택매매 - 유로존 2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P)	22 -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지수 - 한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 - 중국 1월 70개 도시 주택가격 - 일본 1월 소비자물가지수
25	26 - 미국 2월 소비자신뢰지수 - 미국 1월 신규주택매매 - 미국 12월 FHFA 주택가격지수 - 미국 12월 S&P/CS 주택가격지수 - 한국 2월 소비자심리지수	27 - 미국 1월 내구재주문(P) - 미국 1월 미결주택매매 - 유로존 2월 소비자신뢰지수(F)	28 - 미국 4분기 GDP(S) - 미국 1월 도매재고(P) - 한국 1월 광공업생산 - 중국 2월 제조업/비제조업 PMI - 일본 1월 광공업생산/소매판매(P)	- BOE 금융정책결정회의(2/7) 1월 FOMC 의사록 공개(2/2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2/28) - Fed 반기 의회 보고(2월 중)

자료: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Review

국내 주식시장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대외
리스크 완화로 상승
다만,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은 상존

1월 KOSPI는 전월대비 6.97% 상승한 2,183.36P로 마감했다(1월 29일 종가 기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대외 리스크 완화로 상승했다. 중국의 GDP, 수출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됐다. 다만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에 단기적으로 경기 우려가 완화됐으며, 반도체 업황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다만 30~31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둔 가운데 무역분쟁 관련 이슈가 혼재해 불확실성은 지속됐다.

해외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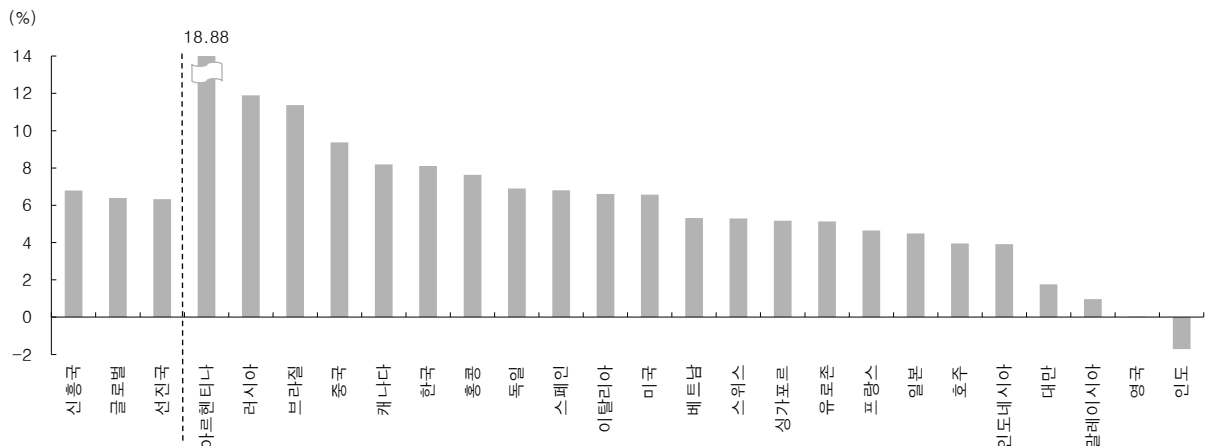
대내외 리스크에도 연준의
비둘기파적 기조, 미 정부
셋다운 해소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돼
전반적으로 상승

MSCI 글로벌과 선진국, 신흥국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5.69%, 5.59%, 6.45% 상승했다.

S&P500은 5.31% 상승했다(1월 29일 종가 기준). 상반기월은 애플 쇼크,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주춤했으나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 이슈에 따라 등락을 보였으며, 하반기월은 연준의 비둘기파적 기조가 이어진 데다 정부 셋다운이 일시 해소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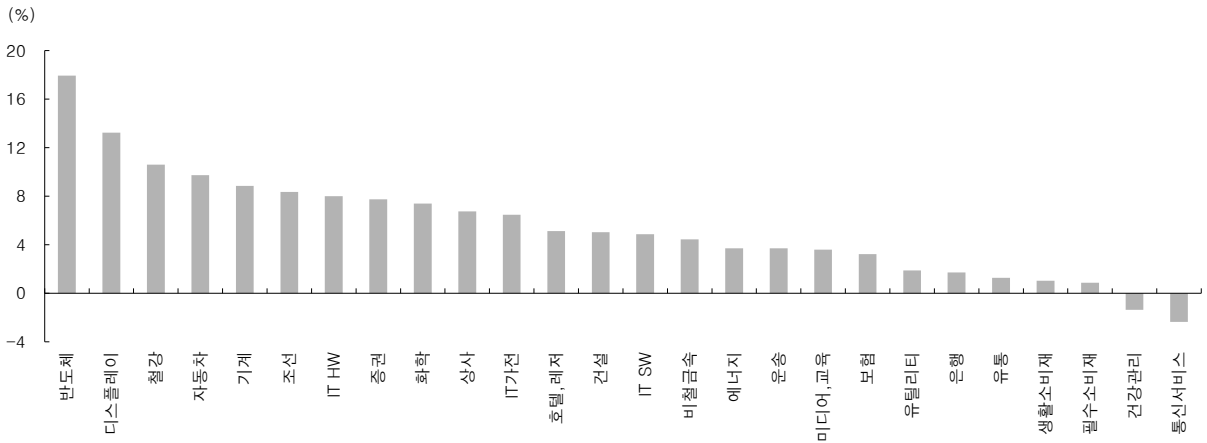
EUROSTOXX50은 5.06% 상승했다(1월 29일 종가 기준). 기존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의회 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부결됐으며, 메이 총리가 제안한 브렉시트 플랜B 또한 실망감을 안겨줬다. 다만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강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이외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 비둘기파적 연준, 국제유가 강세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수는 상승했다.

MSCI 기준 글로벌 주요 증시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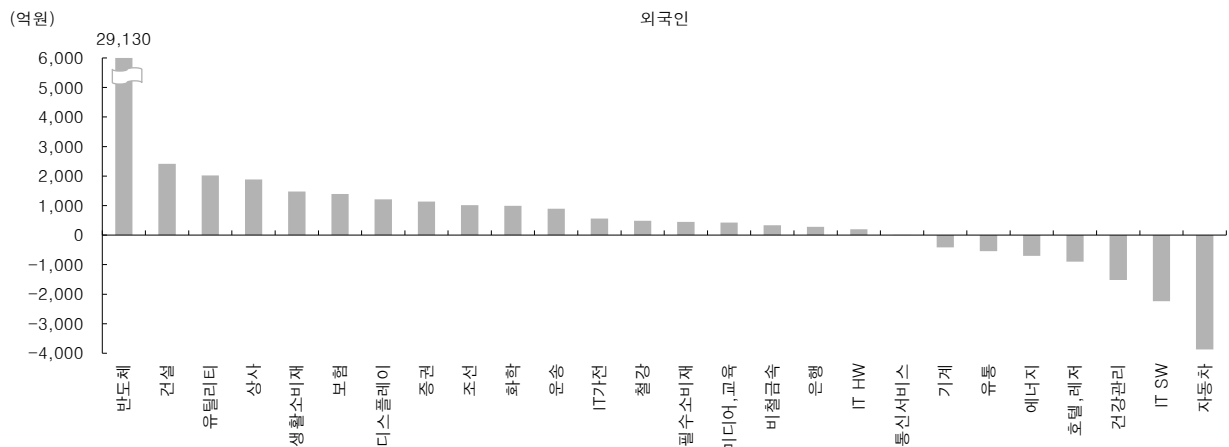


주: 1월 29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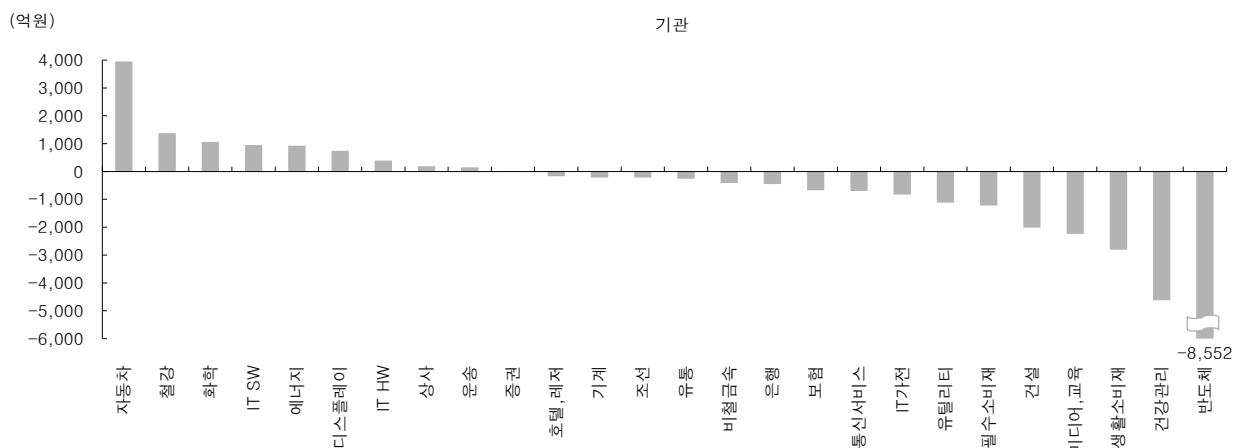
한국 증시 섹터별 수익률 및 투자자 매매현황



주: 1월 29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주: 1월 29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주: 1월 29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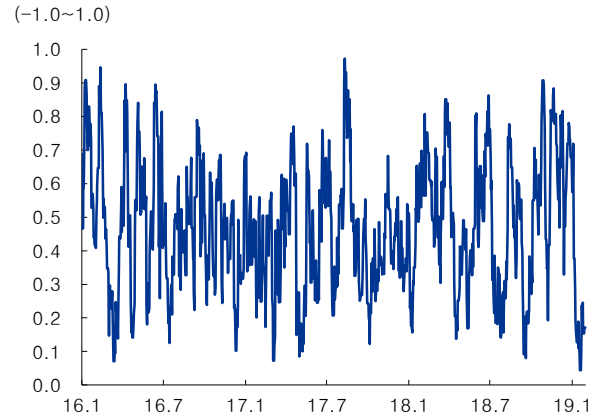
Economic Risk Indicator

Citi Macro Risk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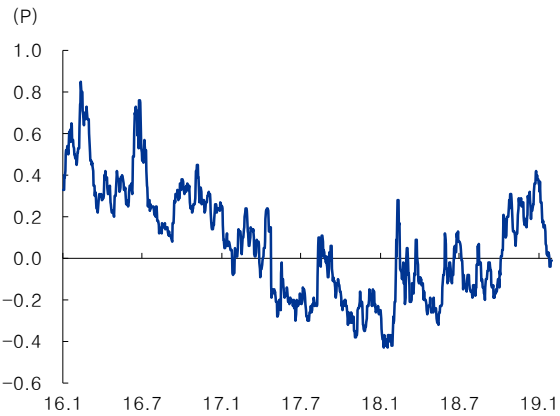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Short-term Citi Macro Risk Index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BofA Merrill Lynch Global Financial Stress Index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EMBI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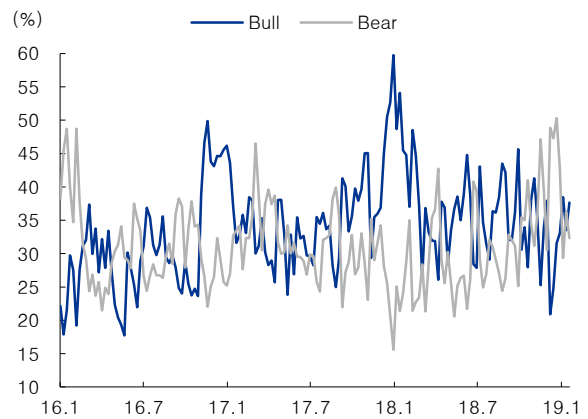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CDS Default Swap Premium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AII(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Index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IBK기업은행의 자회사입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사항없음												

투자 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 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적극매수 40% ~	매수 15% ~	중립 -15% ~ 15%	매도 ~ -15%
업종 투자 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비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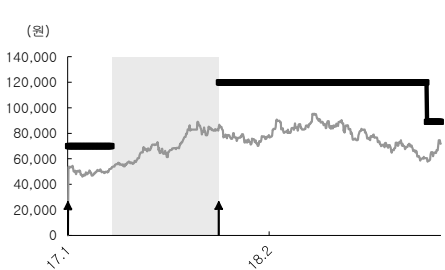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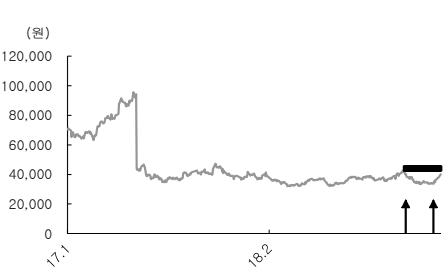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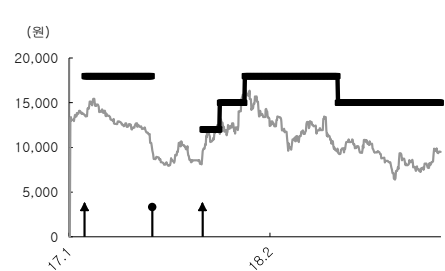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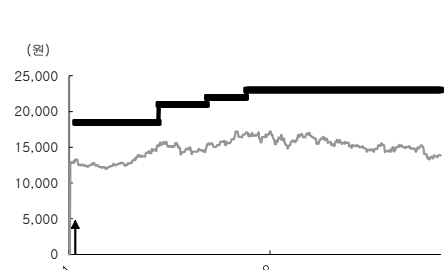
투자등급 통계 (2018.01.01~2018.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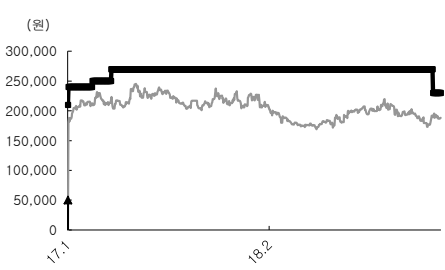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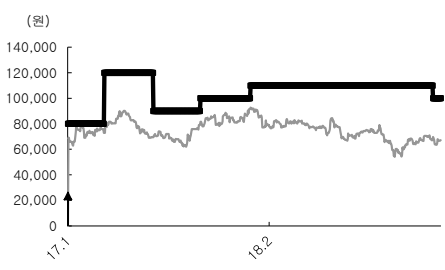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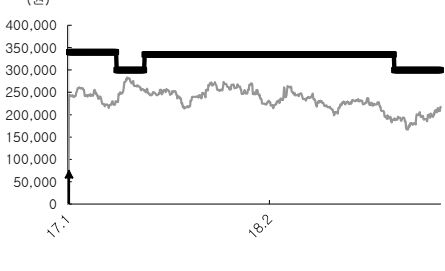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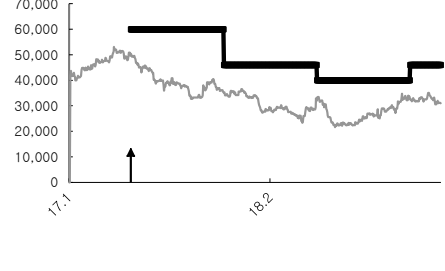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39	85.3
중립	24	14.7
매도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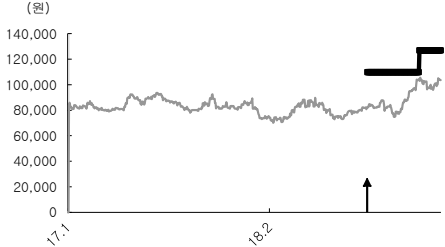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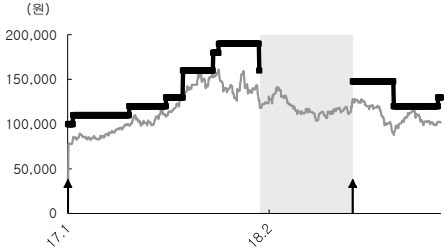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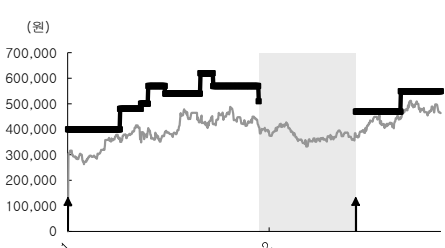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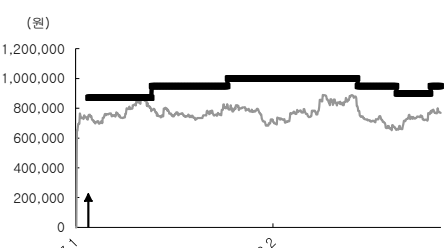
최근 2년간 주가 그래프 및 목표주가(대상 시점 1년)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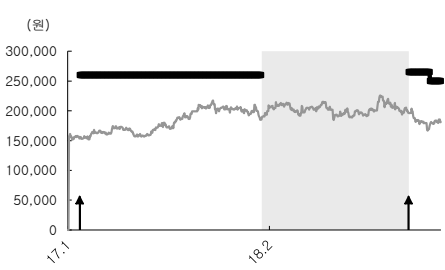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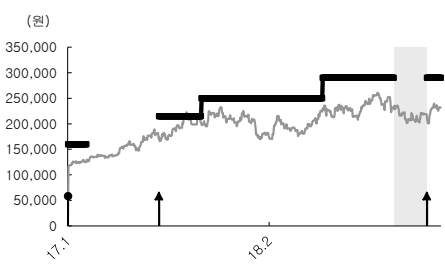
(◆) 적극매수 (▲) 매수 (●) 중립 (■) 비중축소 (■) Not Rated / 담당자 변경

LG유플러스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2017.02.02	매수	16,000	-14.73	-5.63					
		2017.04.07	매수	17,500	-17.19	-7.43					
		2017.06.02	매수	20,000	-25.76	-15.00					
		2017.11.03	매수	18,000	-25.33	-10.83					
		2018.08.06	매수	20,000	-17.36	-8.50					
		2018.11.02	매수	21,000	-19.59	-13.33					
		2019.01.29	매수	21,000							
LG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2017.03.24	매수	95,000	-25.35	-14.95					
		2017.05.29	매수	110,000	-26.16	-18.55					
		2017.11.28	매수	120,000	-32.44	-20.92					
		2018.09.28	매수	105,000	-33.54	-26.57					
		2019.01.29	매수	105,000							

SK하이닉스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원)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17.1 18.2	2017.01.30	매수	70,000	-9.01	27.29					
	2017.11.21		담당자변경	-	-					
	2017.11.21	매수	120,000	-33.40	-20.58					
	2018.11.21	1년경과		-45.35	-					
	2019.01.02	매수	89,000	-27.24	-16.18					
	2019.01.29	매수	89,000							
에스에프에이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원)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17.1 18.2	2018.11.21	중립	44,000	-	-					
	2019.01.29		담당자변경	-	-					
	2019.01.29		Not Rated							
KSB텍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원) 20,000 15,000 10,000 5,000 0 17.1 18.2	2017.02.28	매수	18,000	-27.34	-14.17					
	2017.07.11	중립		-50.36	-					
	2017.10.18	매수	12,000	-6.61	4.17					
	2017.11.21	매수	15,000	-14.77	6.00					
	2018.01.09	매수	18,000	-30.72	-9.17					
	2018.07.11	매수	15,000	-40.15	-27.33					
	2019.01.29	매수	15,000							
기업은행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원)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7.1 18.2	2017.02.10	매수	18,500	-29.72	-17.57					
	2017.07.24	매수	21,000	-29.08	-25.00					
	2017.10.27	매수	22,000	-27.81	-21.82					
	2018.01.12	매수	23,000	-32.47	-25.22					
	2019.01.12	1년경과		-40.26	-					
	2019.01.29	매수	23,000							

GS홈쇼핑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원)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7.1 18.2	2017.01.31	매수	240,000	-14.06	-9.38					
	2017.03.19	매수	250,000	-13.09	-7.32					
	2017.04.25	매수	270,000	-20.76	-9.19					
	2018.04.25	1년경과		-29.30	-					
	2019.01.14	매수	230,000	-17.30	-14.91					
	2019.01.29	매수	230,000							
한국콜마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원)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17.1 18.2	2017.04.11	매수	120,000	-33.59	-24.83					
	2017.07.16	매수	90,000	-23.03	-12.22					
	2017.10.16	매수	100,000	-16.33	-8.50					
	2018.01.22	매수	110,000	-32.65	-16.27					
	2019.01.14	매수	100,000	-33.89	-31.30					
	2019.01.29	매수	100,000							
현대모비스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원)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7.1 18.2	2017.05.04	매수	300,000	-12.06	-5.67					
	2017.06.28	매수	335,000	-27.11	-18.36					
	2018.06.28	1년경과		-35.14	-					
	2018.10.30	매수	300,000	-36.05	-27.50					
	2019.01.29	매수	300,0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원)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7.1 18.2	2017.05.30	매수	60,000	-33.97	-16.75					
	2017.11.29	매수	46,000	-33.82	-20.65					
	2018.05.31	매수	40,000	-32.73	-13.25					
	2018.11.30	매수	46,000	-29.55	-23.80					
	2019.01.29	매수	46,000							

대림산업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2018.09.07	매수	110,000	-21.95	-5.00					
	2018.12.18	매수	127,000	-21.07	-16.93					
	2019.01.29	매수	127,000							
카카오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2017.02.09	매수	110,000	-19.56	-9.36	2019.01.29	매수	130,000		
	2017.05.30	매수	120,000	-12.58	0.00					
	2017.08.10	매수	130,000	-8.13	0.38					
	2017.09.12	매수	160,000	-8.83	-0.31					
	2017.11.10	매수	180,000	-13.43	-11.11					
	2017.11.21	매수	190,000	-25.96	-16.05					
	2018.02.08	매수	160,000	-25.70	-11.56					
	2018.08.10	담당자변경		-	-					
	2018.08.10	매수	148,000	-22.07	-13.51					
	2018.10.29	매수	120,000	-13.19	-3.33					
	2019.01.24	매수	130,000	-21.35	-21.15					
엔씨소프트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2017.05.12	매수	480,000	-19.86	-13.33					
	2017.06.22	매수	500,000	-24.12	-22.20					
	2017.07.06	매수	570,000	-35.13	-30.61					
	2017.08.08	매수	540,000	-21.74	-11.39					
	2017.10.16	매수	620,000	-30.65	-26.77					
	2017.11.10	매수	570,000	-22.33	-14.39					
	2018.02.07	매수	510,000	-25.74	-16.27					
	2018.08.16	담당자변경		-	-					
	2018.08.16	매수	470,000	-11.14	-3.19					
	2018.11.12	매수	550,000	-12.51	-6.91					
	2019.01.29	매수	550,000							
오투기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2017.06.30	매수	950,000	-19.63	-12.84					
	2017.11.29	매수	1,000,000	-21.20	-11.00					
	2018.08.16	매수	950,000	-25.48	-17.68					
	2018.11.02	매수	900,000	-19.66	-13.78					
	2019.01.09	매수	950,000	-18.09	-15.79					
	2019.01.29	매수	950,000							

SK이노베이션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2017.02.21	담당자변경	-	-	-					
	2017.02.21	매수	260,000	-30.06	-16.35					
	2018.02.21	1년경과	-	-22.00	-					
	2018.11.27	담당자변경	-	-	-					
	2018.11.27	매수	265,000	-30.52	-23.21					
	2019.01.08	매수	250,000	-27.63	-25.80					
	2019.01.29	매수	250,000							
삼성SDI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추천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2017.03.08	중립	-	-	-					
	2017.07.27	매수	215,000	-9.74	3.72					
	2017.10.18	매수	250,000	-19.62	-7.00					
	2018.06.12	매수	290,000	-21.63	-10.00					
	2019.01.29	담당자변경	-	-	-					
	2019.01.29	매수	290,000							